

직원 참여형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 체감도 개선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'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부문에서 동일 유형(중앙Ⅱ) 평균점수 대비 일부 지표*가 낮게 평가됨
 * 부당지시(평균점수 대비 -0.8점), 갑질행위(-0.9), 사익추구(-1.0), 예산 부당집행(-0.5)
- ☞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 인·허가 등 부패를 유발하는 업무가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조직의 청렴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내부 직원의 청렴체감도가 낮은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음
- 내부직원의 부패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전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필요

□ 주요 추진내용

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성원 간 활발한 소통 활동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

- 부패방지 조직문화 조성 「I-DO, WE-DO ‘숯품’ 공모전」

목적	부당지시·갑질행위 개선 등에 대한 부서별 소통기회 부여 및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* I-DO(나부터 실천), WE-DO(우리 모두 실천)
공모 주제	▶ 반부패·청렴 가치에 대한 메시지 전반 ▶ 갑질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·대응방법 ▶ 관행화된 불공정한 문화의 개선에 대한 경험 또는 생각 ▶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구성원 인식 제고 등
참여단위	부서 단위 * 전 부서원이 함께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고민에 참여하는 과정에 중점을 둠
공모기간	'24.5.13.(월)~6.14.(금)
공모결과	출품작 40점 (우수작 5점 시상)
결과활용	▶ 공모전 추진활동 및 실적 언론 홍보 ▶ 우수작 내부 인트라넷 및 외부망(청 공식 유튜브) 게시 홍보



영상 제작 회의 및 촬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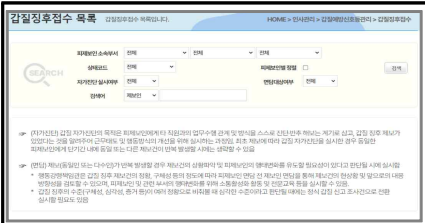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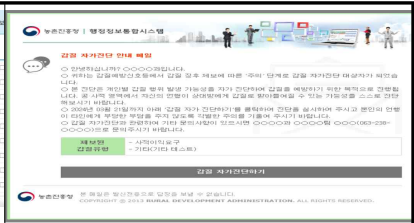
숯품 제작 영상(역할극 챗봇지 등)

내부망 및 청 유튜브 게시 및 홍보

언론보도

○ 갑질 징후부터 예방하는 「갑질예방신호등」 운영

목적		갑질 발생의 초기단계에서 행위자의 갑질 징후를 사전에 제보하여 행위자의 자가진단을 통해 갑질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
운영방법		청 행정정보통합시스템에 ‘갑질예방신호등’ 시스템 개설('24.1.22.~)
운영체계	제보인	갑질 행위의 징후를 보이는 상급자·동료 등을 지정하고, 대상자의 갑질 징후 유형* 을 선택하여 갑질예방신호등 시스템에 등록 * 법령 등 위반, 사적이익요구, 부당한 인사,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
	행동강령책임관	제보 접수 및 접수 횟수에 따라 피제보인 대상 단계별 조치 - 자가진단: 갑질 징후 최초 제보시 피제보인으로 하여금 자가진단 실시 - 면담: 동일인에 대한 피제보 반복시 면담 실시
	피제보인	(1단계) 갑질 자가진단 (2단계) 전담 공무원과 면담, 행태변화 유도 교육 등
자가진단방법		‘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’, ‘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 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’ 등 10개 문항(5점 척도)에 대한 총점으로 갑질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진단
운영실적		'24년 접수 및 자가진단 38건 실시

		
갑질징후접수 목록 메뉴	갑질유형 선택 등 등록 메뉴	갑질 자가진단 안내 메일

□ 추진과정 중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

○ 직원 참여형 시책에 대한 참여 부담감 및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

구분	장애요인	극복방안
숏폼 공모전	▶ 영상촬영 및 편집기술에 대한 참여직원들의 부담 ▶ 참여율 저조 우려	▶ 스마트폰 촬영, 30~60초 분량으로 접근성 향상 ▶ 소속기관 대상 반부패·청렴 시책 평가시 가점 신설
갑질예방 신호등	▶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 ▶ 동일인에 대한 중복 제보시 자가진단 중복 우려	▶ 갑질예방신호등 시스템 인지도 조사 및 홍보 강화 ▶ 단기간 반복 제보시 자가진단 및 면담실시 기준 마련

□ 주요 추진성과

- (정량) 부당지시·갑질행위 개선 등 직원 참여형 시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
'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 1등급 달성(’23년 2등급)
* 전년대비 내부직원 청렴체감도 향상(+9.1): 갑질행위(+5.0), 부당지시(+4.6), 사익추구(+4.9)
- (정성) ① I-DO, WE-DO 솟품 공모전을 통해 부서장과 부서원이 함께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반부패·청렴 가치 제고 등을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조직문화 행태 개선에 기여하였고, ② 갑질예방신호등을 통해 갑질 징후 단계에서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갑질근절에 기여

□ 우수사례 선정 사유

- 직원 참여형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체감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청렴도 개선 및 내부직원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한 성공적인 청렴시책의 사례로 활용 가능
 - 솟품 공모전은 다양한 출품작을 통해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을 볼 수 있어 반부패·청렴시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
 - 갑질예방신호등은 갑질징후 발생시 자가진단을 통해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시스템으로 타기관으로 확산 가치가 높은 사례로 보여짐

✓ 해당 사례가 '22년도~'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'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'에 해당 여부	예 ■	아니오 □	
✓ 과제 제출 년도 * ('22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⑤번, ('23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, ('24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	'22년 □	'23년 □	'24년 ■
✓ '22년도~'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(자율과제 제출)	예 □	아니오 ■	